

검도 중 발생한 스포츠 손상: 예비 보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

송현석 · 최남용 · 박성진 · 한석구 · 나기호 · 김영훈

서론

검도가 과거에는 일부 전문 체육인들만의 스포츠였으나, 이제는 사회 체육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다. 국내 검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스포츠 손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심한 외상 또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지속적인 검도에 의해서 발생한 내용을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대한 검도회 산하 3곳의 검도 도장에 소속된 관원을 대상으로 검도 중 발생한 스포츠 손상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총 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위별, 증상별로 구분하였으며, 증상의 유병 기간과 수상 경위에 대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곳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결과

대상으로 한 총 98명 중에 대부분이 2부위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부위별로는 족부가 가장 많았으며, 손목, 어깨, 무릎의 순서로 많았다. 증상으로는 족부의 동통과 피로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 중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46명 (46.9%) 밖에 없었다.

결론

격렬한 스포츠인 검도는 손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 의사가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확한 자세의 습득과 적절한 보호 장구의 사용으로 그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지속적으로 운동 중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심각한 손상으로 운동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하고 보다 많은 인구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